

대림 제4주일

제 1독서 : 미가 5, 1-4a
제 2독서 : 히브 10, 5-10
복 음 : 루가 1, 39-45

숲 정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됩니다.”
(루가 1, 45)

강 련

소 리

구령주(救靈主)?

박창신 신부/남원 천주교회

대림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기 위하여 오랜 동안 알차게 준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구령주를 기다리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옛날 교리문답 처음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 났다는 교리의 영향으로 지금도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인 신앙인일수록 세상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타락이나, 반그리스도적, 반복음적이라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타락하고 억압이 존재하는 세상에는 관심 없이 종교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은 본고향으로 가는데 스쳐가는 곳이라 주장합니다. 이렇게 영혼만을 구원하려고 아기예수를 기다린다면 그 아기는 구령주이지 구세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외된 계급을 위하여 일하다가 지배세력(루가 19, 47)에 의하여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는 주장하십니다.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억눌린 이에게 해방을... 은총의 해(회전)를 선포(루가 4, 18 이하)하시며 자기 백성을 억누르는 지배세력집단과 한바탕 싸움을 하시므로 억눌린 이들의 집(마태오 11, 28)을 풀어 주십니다. 확실히 예수는 영혼만을 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배보수집단에 의하여 모든 것을 독점당하고, 이에 맞서 저항하여 얻어 내는 역사로 본다면,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아닌 불의와 폭력이 난무한 독점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성하다고 하는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세계 무역기구(WTO)만 보더라도 독점보수집단들은 자기들만의 이익 독점을 위해 가난한 농촌과 노동자들과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세계 독점 자본과 경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민족, 반민중적이며 억압과 착취의 고리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영혼만을 구하시는 예수로 믿고 따른다면 예수를 다만 구령주로만 보는 잘못된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모두가 파수꾼

신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대형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해 준다.

구포(九浦)를 시작으로 목포(木浦), 격포(格浦)에 이르더니 마침내 한강의 성수대교 붕괴와 마포(麻浦)에서 폭발로 금년의 대미(大尾)를 장식하고 있다.

포(浦)자 항렬의 이 장기 시리즈는 따지고 보면 모두 인재(人災)나 다름없다. 조금만 주의하고 한번만 더 살펴보면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도 항상 허술함과 나태와 안이한 사고(思考)가 참화를 불러 오고 있다.

이번 가스 폭발사고도 그렇다.

가스회사의 처사도 그렇고, 그것을 지시 감독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잘못은 없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치루는 민방위 훈련은 무엇인가. 겨울철이 가까와 오면 예방진단에 법석을 떠는 소방당국은 또 무엇인가.

지난 가을 대형사고를 없애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일도 사실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나 관계 부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남에게 일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사고 예방에 전국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국민 모두가 파수꾼이며 고발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우리 주변도 살펴봐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리 한들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내 집의 연탄화덕과 가스밸브도 살펴보고, 두꺼비집이라도 한번 더 들여다 보는 정성이 아쉽다.

항상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 남의 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보자는 얘기다. 

숲 정 이 산책



특 집

나의 성탄절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 가타리나(주부)

나에게 있어서 성탄은 무엇인가? 나는 거의 성탄절을 연례행사처럼 느끼며 맞고 보냈다. 그 동안 소란하게만 느껴졌던 아이들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고 없다. 시집 가고, 군대 가고, 그렇게들 내 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나를 외롭게 만든 남편이 문득 그리운다.

그간 나는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누구나 다 그러하겠지만, 남보다 더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보통 엄마들처럼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곁에 있지 않은 요즘은 텅빈 공간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떤 때는 이웃들과 아옹다옹하기도 했다. 때로는 기죽기가 싫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 주고 싶어서 얼굴을 붉히고 핏대를 올리기까지 했다. 그런 일 때문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부편지를 쓰기로 했다.

출필고(出必告) 하겠습니다

박 루치아(학생)

어른들은 저희들더러 X세대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가끔은 어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세대차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X세대이건 아니건 근년에 들어서 세대차이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더 그런 듯 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저, 새로운 깨달음에 가슴이 설렙니다. 어른들의 걱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을 나갈 때, 꼭 말씀드리고 허락을 얻겠습니다. 전화로라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잘 다녀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 딸을 염려하시는 부모님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 성탄절 선물입니다.

볼 수 있게 하소서

최 바오로(진달래 마을)

해마다 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이곳의 소외된 가족들에게는 그렇지가 못하다. 우리에게는 그저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은 내일 같으며, 또 내일도 어제같이 한가롭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터에서 평화를 얻어가려고 이 후미진 곳을 찾는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곳은 님의 영으로 가득차 있는가 보다. 그런데도 나는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린다. 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신다기에.

그러나 주님은 내 가까이에 님을 두고도 일빠진 행동을 보인 나에게도 이 대림절에 사랑으로 찾아 주셨다. 멀리 그리고 가까이,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서 '네 가까이에 있는 나(주님)를 찾으라'고 말이다.

님이여! 볼 수 있게 하소서. 참으로 좋은 이웃들이 우리에게서 당신을 찾아내듯이 우리도 그들에게서 당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원구의 모든 것

발육완구 · 학습완구 · 각종게임기류

아카데미 완구

아이들 세상

중앙국교 앞
박한웅(요한)

☎(0654)446-1853

군산역 앞
김현자(수산나)

(0654) 43-4536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 · 피부과
메이크업 · 분장과
김금순(테레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86-2211,254-300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잠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13. 세계 가정의 해를 보내며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가정의 해를 지내면서 현대 가정의 위기를 거듭 자각하고 건강한 가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가정의 수호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교회와 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교회가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소명 가운데 으뜸 자리를 차지합니다.

현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천명하면서, 낙태는 분명 살인 행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의 근원임을 소리 높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계획의 손쉬운 방법으로 낙태를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상 출산의 두 배가 넘는 150만 명의 태아가 모태에서 소리 없이 살해당하는 이 땅의 현실은 '낙태 왕국'이라는 오명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가정의 해인 올해, 우리 교회는 낙태 반대를 비롯한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노력들이 미미하고 그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건설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해는 저물어 가고 있지만 이 가정의 해에 기울인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소식

- 1. 이병호 주교님 미사일정 : 성탄 전야 미사-12월24일(토) 오후11시30분 중앙 성당
성탄 대축일 미사-12월25일(일) 오전10시30분 송학동 성당
- 2. 천호 피정 안내 : 12월23일~25일 주제-성탄 대피정, 강사-전달수 신부,
문의 77-6600
- 3. 신학생 3·4학년 현장생활 체험 및 세미나 : 현장생활 체험-12월19일~95년 1월19일,
세미나-95년 1월19일~22일
- 4. 교도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12월19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 5. 재소자를 위한 방학 및 성탄미사 : 12월21일(수) 오후1시 장소-교도소
- 6. 주부대학 : 12월24일(토) 오전10시 화산동 성당, 주제-바람직한 인격형성,
강사-김정수 교수
- 7. 나춘성 신부 전화번호 변경 안내 : 001(002)-705-748-3889

-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회 : 12월25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 923-1946
부산 '성베네딕도수도회' : 12월25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0652) 78-0094
살레시오수도회 : 12월25일 오후1시 인보성체수도회 (062) 512-0332
인보성체수도회 : 12월25일 오후1시30분 본원 (0652) 84-3231

요심이 (1112) 김병오



직원 모집

1. 직명 : 기능직(전기분야) 2명 2. 자격 : 중학교이상, 졸업자(남자) 군복무 필한자 및 면제자 (35세 미만)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최종학교생활기록부사본, 자격증사본(소지자) 각 1부 4. 제출처 : 성심여중고 서무과(84-3244) 혜성중고 서무과(224-6114) 5. 제출마감 : 94. 12. 21 오후 5시
학교법인 해성 학원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호 자(삼천쌍용APT 앞) 221-8331

솔잎 농축액

· 피를 맑게, 고혈압, 약성콜레스테롤 제거 · 기관지 천식, 노인성 치매에 효능 입증 · 「신비의 솔잎 치료법」책으로 출간(유태중 박사)(솔잎주도 판매합니다. 판매원 모집중)
이종화(방지거) · 기정민(피비올라) ☎ 225-0548, 221-0956

조주장 한의원

비만클리닉 개설 (스트레스성 피로회복 및 통증치료)
조주장(이나시오) 차숙(글라라) 코야전녀편(중앙시장 입구) ☎ 254-6382

성신당 한약방

이흥재(요셉)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제9기 '95학년도 원아모집 새나리종합학원

장동철(아오스딩) 김은숙(까리따스) 서신동 우신APT 입구 ☎ 72-8415, 846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4주일
◎ 축! 세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본당 관공 일정: 21일-중노 구역, 22일-남노, 인후 구역 구역(손님신부님)-기타 구역
시간: 후 3시~5시30분, 미사 전후, 시간 엄수바람
 2. 성탄 미사시간 안내
24일-저녁미사(후 7시) 성탄 전야미사: 밤 11시
* 세실리아회 성가 발표 및 구유예절(구유헌금) 있음
25일-전 10시, 후 5시, 새벽미사 없음
*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 참여하기 바랍니다.
 3. 초등부 성탄 예술제: 24일, 후 3시~5시
 4. 중·고 성탄 예술제: 24일 후 6시~8시30분
 5. 사목회 정기총회: 25일 장엄미사 후, 지하 교리실
* 사목회 고문, 감사, 각 분과부장, 차장, 제단제장, 반회장님께서는 참석바람.
 6. 대림절 사랑의 성금: 현재 누계 134만원
 7. 모임: ①대건회(18일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20일 어머니미사 후)
③꾸리아(25일 후 2시) ※ 정기총회 관계로 천사의 모후 꾸리아도 후 2시에 합니다.
 8. 금주 청소: 기린봉 1,2만. 치주 청소: 기린봉3, 중노13만
□ 지난주 봉헌금: 1,020,350원 □ 2차헌금: 450,0205원
□ 지난주 교무금: 3,465,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1. 95년도 교무금 수입에 정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성탄복권 행사: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 행사 때 나눔 선물을 많이 기증해 주십시오.
3. 성탄 관공성사 못 보신 분들은 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4. 교무금(94년도분) 미납되신 분은 완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꾸르실로 남성 49차: 1월5~8일, 여성 47차: 1월12~15일 꾸르실로 교육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 성우회 정기총회: 18일(오늘) 공식미사 후(임원선출) 빠짐없이 참석바람.
7. 빈첸시오회: 24일 오전 10시
8. 병자 관공성사(불설체): 23일(금) 오후 2시, 병자가 계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9. 레지오 연차 친목회: 19일(월) 저녁 7시 단원 및 협조단원 필히 참석바람. 각 Pr.에서는 여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 어린이 성탄행사: 24일(토) 오후 2~3시 제1부 예술제, 오후 3~5시 제2부 은총시장, 중·고등부 성탄 예술제: 24일(토) 오후 5시~6시30분
11. 대림절 성서 특강을 해주신 장 시몬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2. 성탄 청소: 12월24일(토) 평화의 모후Pr. 순결하신 어머니Pr.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나경섭 부부 봉헌-이준철 가족
- 자정미사 전례: 해설-오교성, 조옥례, 독서-정승관 부부 봉헌-조백환 가족
- 차주 전례: 해설-황만금,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김용식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18,550원 □ 교무금: 3,296,700원
□ 2차헌금: 288,140원 □ 감사헌금: 1,000,00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대림 제4주일
1. 모임: 성모회-다용주일
 2. 구역미사 및 판공: 19일(월)-상신, 20일(화)-하신
 3. 영세자 특별교리 및 본당신부 면담: 21일(수)~23일(금)
 4. 성탄절 행사: 24일 ①초·중·고 예술제-저녁 8시 ②천교의 시간-저녁 9시30분(떡국파티) ③구유축성 및 경배예식-저녁 10시(감사헌금 봉헌) ④예수성탄 밤 미사-저녁 10시30분 ⑤영세식-전야미사중에(21명)
 5.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25일(일) 오전 10시
(주일학교 은총시장-공식미사 후)
 6. 성탄절 특별 감사헌금: 24일(토) 오전 10시
(주일학교 은총시장-공식미사 후)
 7. 축! 흔배: 신랑-유대현(미카엘) 신부-이경희(마리아)
18일(일) 12시30분, 장소-떡진 성당
 8. 금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9. 차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10.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이우동 ②송정자
봉헌-황옥설 부부
예수 성탄 밤미사: 해설-최원규, 독서①최경림 ②이순자
봉헌-최경림 부부
예수 성탄 낮미사: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이석남
봉헌-박귀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54,380원 □ 자선주일: 171,260원
□ 교무금: 1,001,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1.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축 친목회: 오늘 오후 2시
2.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탄 경축 행사: 12월24일 오후 7시~9시30분
4. 성탄 전야미사: 12월24일 오후 10시
5. 성탄 대축일(주일)미사: 새벽미사-없음, 공식미사-10시, 주일학교 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오후 6시30분
6. 반장회: 12월25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관공성사: 미사 전후
8. 사무장 퇴임식: 이복만(베드로) 형제님
□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939,950원 □ 교무금: 1,942,000원
□ 2차헌금: 447,28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대림 제4주일
1. 금주: ①혼인장작(전 8시)30분, 썬타
②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③청년연합회(후 8시)
 2. 성화회: 18일(월) 오후 6시
 3. 성모회: 20일(화) 오전 11시
 4. 빼에따회: 21일(수) 오전 11시
 5. 영세식: 25일(공식미사중)
집중교리: 22, 23일 오후 8시
면담: 22, 23일 오전 10시-12시
 6. 성탄절 행사: 24일 전야미사-밤 11시
초등부 은총시장: 오전 10시
초·중·고 발표회: 오후 7시
블우이웃돕기 바자회
25일 낮미사: 오전 9시, 10시30분, 오후 3시, 5시, 7시
 7. 차주: 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1,932,17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삼근

- ◎ "만군의 주 하느님 돌아오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1. 성탄 예절 안내: 성탄 전야미사-24일 후 9시, 25일-전 9시, 전 10시30분, 후 2시(어린이) 후 7시30분, 초·중·고 예술제-후 8시30분
 2. 모총 관공성사: 오늘 매 미사 전후, 21일-어머니미사, 저녁미사 전후 반회장은 관공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3. 성소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회비-매 미사 전후 납부
 4. 가정방문: 20일-오전 9시 10-6, 11-1, 오후 2시 11-2, 11-3, 5, M.E 가족 송년 나눔 모임: 19일 후 7시, 회비 부부당 5천원
 6. 회의: ①한빛회, 임마누엘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성모회-21일 어머니미사 후 ④울뜨레아, 몽승회-25일 공식미사 후 7.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19일 전 10시30분 썬타3층
 8. 교도소 성탄미사 및 생일잔치: 21일 후 1시 은인 구합니다.
 9. 성탄맞이 대천소: 22일 전 10시, 작업도구 지참 10. 축복식: 23일 전 10시30분 코오롱 1동 105동 임 실비아 11. 축복미사: 23일 전 11시 코오롱 8동 1702호 유 안젤라 12. 진입을 환영합니다: 평화주공 APT-박경숙(로사) 303/205 T. 231-1339 김우생(바오로) 102/520 T. 83-2616 코오롱 APT-이만숙(헤레나) 7/502 T. 225-6020 김정호(비안네) 12/101 T. 225-2709 강영기(바오로) 2/301 T. 225-2735 윤복남(루시어) 7/1301 T. 225-7953 김용현(진길 아우구스티노) 8/204 T. 224-1505 박한석(시메온) 7/1102 T. 225-5843 서영건(토마스) 6/704 T. 224-2550 이종형(알베르토) 9/1002 T. 225-3123
 - 지난주 봉헌금: 1,162,920원 □ 교무금: 3,769,000원